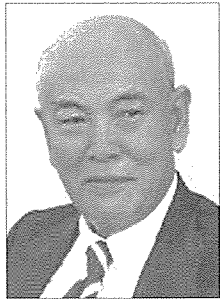




## 신년사



本誌 發行人 曺  
韓國單味銅料協會  
會長 兪東濬

**청** 계천 복원으로 서울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감격한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을 주도한 전문가 중에는 현 상태의 준공은 10% 성과이며 준공식은 착공식으로 봐야한다고 한다.

청계천의 상류천은 청와대이며 현재 동아일보 앞에서 청계천 복원 공사가 끝난 것은 잘못이라며 최소한도 교보문고를 지났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인들은 조선조 성군 중엔 단연 세종대왕을 앞세운다.

그러나 사학자간에는 세종보다 정조대왕을 꼽는다. 규장각을 만들어 인재들을 모으고 그 인재들로 수많은 저술을 하여 한국의 르네상스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정조가 성군이 되기까지는 할아버지 영조가 어린 정조의 손을 잡고 청계천에 데리고 가서 민(民)을 함부로 동원하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해 훌륭한 임금이 되도록 현장 교육까지 시켰기 때문이다.

### 수원(水原)은 한국농축산의 메카다.

1906년 통감부 훈령에 의거 수원에 권업모범시험장(현 농촌진흥청)이 설치되고 그 이듬해 농림학교(현 서울대농대)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금년은 농진청 100주년의 해다.

‘왜 수원에 농대와 농촌진흥청을 설치했느냐?’는 정조대왕의 천도(遷都)의지와 관련해 수원에 국영시범농장인 둔전(屯田)을 세 곳에 마련하고, 그곳에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축만제(서호 : 西湖)와 만석거(숙명 조기정 방죽), 만년제라 명명했다. 특히 1799년 축만제를 준공하고 관개수는 물론이고 요즘 관광농원에 비견할 만한 관광용 저수지로도 활용토록 했다.

농촌진흥청과 농대 자리일원은 정조시절 서쪽의 둔전이 있던 곳이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西屯洞)이다.

# 한국 농 · 축산 메카를 상기하자

농대 출신들의 모임의 명칭엔 서둔회(西屯會)가 많은 것은 농대가 서둔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대 동문들마저 서둔동의 내력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조대왕께서는 남수원(지금은 평택시 청북면)에는 목장을 설치하여 “홍원목장”이라하여 축산진흥도 함께 도모하셨다. 똑섬에도 목장을 설치하였다. 훗날 똑섬경마장 자리다.

이만하면 정조대왕께서 얼마나 농업 · 축산을 중히 여기셨는지 알게 된다.

그런 연유로 국영농장이 있던 수원 서호에 농대와 농촌진흥청이 들어선 것이다.

1999년 축만제(지금의 서호)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서울대 농대 공동추최로 “한국농업 연구 200년” 전통과 계승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서둘러 거창하게 개최했다. 그간 많은 농업 · 축산인들은 통감부 훈령을 기준하여 한국농업 100년으로만 알고 있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나를 통감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심포지엄이 있던 그날 농대 이전 발표가 전해져 행사장 장내를 숙연케 했었다. 농대는 몇 년 전 관악으로 내뺐고 이제 농촌진흥청마저 수원을 떠나려 한다.

떠나고 난 자리는 이 나라 농업의 메카였음을 기록하고 농업박물관 및 근 · 현대 농업기념관은 물론 농업생명 과학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바이오밸트를 형성하여 한국농업발전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정조의 수원(水原) 천도(遷都)의지가 실현됐다면 농업중심도시가 국가 수도가 된 유일한 기록도 세웠을 것이다.

## 개는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동물이기도 하다.

금년 개띠 해에는 쌀의 개방의 아픔을 딛고 힘차게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라도 농촌진흥청과 농대의 터를 한국 농 · 축산의 메카로 상기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㉟